

■ 법률 칼럼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 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 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

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명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에도 N-400라는 시민권 증명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올바른 교합의 재구성

젓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서 늦어도 15세면 영구치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일을 하게 되지요. 치아의 경우 피부같은 조직들과 달리 상처를 입었거나 손상 받았을 때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 온 치아들은 충치로 상하는 경우 외에 자연적인 마모로 형태가 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구치가 새로 낳을 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치아의 위치는 입술, 혀, 볼의 근육, 그리고 상대 대합치아나 주변 치아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치아가 마모되어 형태에 변화가 와도 우리 몸은 이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적응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허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 치아의 이동이 발생하고 교합과 주변 근육들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악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이러한 근육과 관절의 이상 변화는 치아에 외상이나 동요 등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교합 패턴을 허용 범위 내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치료와 진료 가운데 크게 보철치료와 교정치료 이렇게 두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합의 변화를 회복하는 데는 필자의 전공분야인 치주 분야는 아니지만 교합의 중요성 때문에 이 두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보철 치료의 경우는 마모나 충치로 인해 소실된 부분의 수복 치료라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철 치료는 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치료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합니다.

치아를 자세히 보면 소위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닳아 없어져 계곡까지 이르게 되고 심하면 이 계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점점 더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가 맞물릴 때 위 치아와 아래 치아의 전체 높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줄어든 높이는 결국 근육의 강한 수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육의 이상 수축은 아래턱을 위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악관절들 사이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악관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철치료는 이렇게 닳아 없어진 치아의 부분을 보철물을 통해서 복원시키는 치료를 골자로 합니다. 없어진 산을 다시 세우고 계곡을 만드는 단순한 형태 복원이 아니라 관절의 형태와 운동 범위, 근육의 운동 패턴과 힘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도 조화로운 효과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 그리고 위치 등을 조절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해결 치료법인 교정 치료는 주로 빼돌려진 치아들을 예쁘게 배열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정치료에서 교합의 재형성이 본질적인 목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정치료의 심미적인 면은 조화로운 교합을 형성하다 나타나는 이차적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치아의 높이가 낮으면 치아를 맹출시켜서 높게 만들고 근육의 힘을 부조화로 치아의 배열이 틀어지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환경을 조절하면서 치아를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치아가 많이 닳아서 짧아진 경우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끌어 올려 적절한 높이의 치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주변 근육 기능을 우리 몸의 허용 범위 내로 다시 끌어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치과 치료는 이렇듯 나무만 보고 그 나무가 전부라고 보기 보다는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숲을 보면서 그 숲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어떤 치료일지 알아보는 것도 자신의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